



2면

미국 시애틀 경제사절단에 전북 투자 설명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음 3월 14일) 제3489호

대표전화 (063)288-9700

“지역 주도 광역비자 도입 필요”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9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와 향후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지방안전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농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한정, 고용인원 제한 등으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의 사회개혁과 국권 수호의 정신은

김관영 도지사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정책 추진해야”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식 참석 독려·적극적 홍보 요청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에 각 시도지사들의 참석

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차기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을 위

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무협의회에서 지방안전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제57차 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회장으로, 김관영 지사와 김태홍 충남지사를 부회장으로 제17대 임원단을 구성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 앞쪽 오른쪽 네번째)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및 부단체장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홀로그램 산업 ‘몸집 키우기’

전북자치도, 올해부터 익산시와 체감형 기술 사업 등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실증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해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익산시와 함께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총사업비 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은 도내 홀로그램 기업이 생활 체감형 홀로그램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8개 기업을 선발해 도입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줄 획기적인 홀로그램 구상을 발굴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은 도내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다.

10여개의 홀로그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홀로그램 제품 성능 향상, 홍보물 제작 및 전시, 홍보 전략 수립, 투자 유치 방법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두 사업을 통해 도내

홀로그램 기술의 도약과 서비스의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홀로그램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더 나아가 올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총사업비 200억)’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홀로그램 제품 개발 및 실증,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실무 인력 양성, 홀로그램 관련 신생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기존·신생 홀로그램 업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도내 홀로그램 산업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모 선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 키얼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원광대학교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김재훈 기자

농생명산업 영토 유럽으로 확장

전북자치도, ‘호라이즌 유럽’에 신청 준비 나서기로

농생명혁신성장위서 푸드테크 협력과제 선제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 중심도시를 넘어 농생명산업 영토를 유럽에까지 펼친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농생명분야 신청 준비에 나선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8조원)를 지원 하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상이 지난 3월 타결됨에 따라, 아시아에서 첫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도 EU 연구자와 동등하게 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비 편성과 선진화된 연구 시스템 습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논의를 시작했고, 덴마크 과기부 산하

이노베이션 센터(ICDK 서울),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2개 과제 제출을 목표로, 엘리아스 회원사인 식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북바이옴융합산업진흥원, 대학, 푸드테크 기업 등과 함께 과제 수요발굴 및 사전기획, 파트너 기관 매칭 등의 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생명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국내외 유망기업과 협업을 통한 R&D 및 실증 경쟁력 강화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소재 농생명혁신기관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의 단초가 마련돼 개방형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내달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주간’

도민 대상 특별한 이벤트 ‘풍성’

유통업계 연계 할인행사 · 장바구니 증정 등 진행키로
SNS 초성퀴즈 이벤트 · 토크콘서트 형식 대화의 장도

행하고, 이마트전주점은 대형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25~27일)를 진행한다. 전주, 익산, 군산 등 도내 삼성 가전매장 9개 지점에서는 구매 포인트 제공과 사은품 증정 행사(15~30일)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는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기념, SNS 초성퀴즈 이벤트’

를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 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5월 3일에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청년들과 어우러지는 대화의 장을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토크콘서트는 김관영 지사가 일타 강사로 나서 특별자치도의 가치, 특별법 내용, 출범 100일 소회 등을 전

달하고 ‘청년 100인에게 듣는 백년대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청년 농업인, 창작인, 자영업자, 외국인 유학생 등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미래 주인공들과 전북의 미래 방향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로 의견을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 100여일은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 실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살피던 시간이었다”며, “6월 25일 개최될 제1회 전북포럼에서도 해외 전문가들과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전북의 미래상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생명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해 분위기를 이어가기에 나섰다.

오는 26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100일이 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출범 100일 주간으로 설정했다.

특별자치도 설립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전북의 미래 방향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전북자치도는 출범 100일을 기념해 도내 축협 축산물판매장과 삼성 가전매장, 이마트 등 유통업체와 연계해 도민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도내 전주완주김제축협, 남원축협, 무진장축협 등 8개 축산물판매장에서는 한우 할인행사(24~27일)를 진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승마체험과 관광은 장수의 지름길

전라북도 장수에서 말 달리자!